

전문 포장디자인 분야 질적 발전에 앞장

독특한 우리 문화답은 한국적 디자인 제시할 때

최동신/한국포장디자인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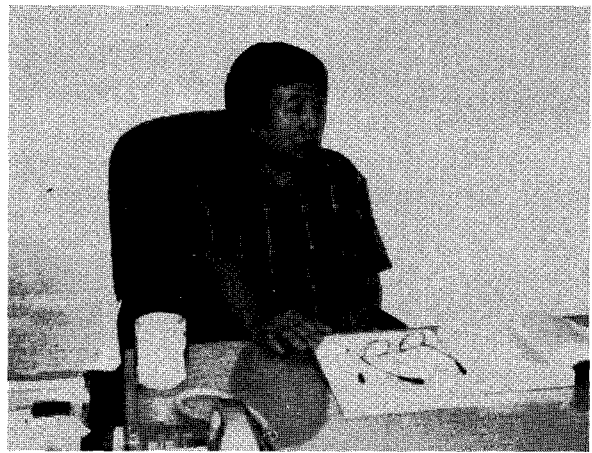
우리나라 포장디자인은 지금까지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질적인 발전은 그다지 진보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풀어나가고자 결성한 것이 '한국포장디자인학회'이다.

93년 결성되어 포장디자인 전문분야의 학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전문분야로의 정착을 목표로 매진해 온 한국포장디자인학회는 2대 회장에 최동신 교수를 추대하고 본격적인 틀을 갖고 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포장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양적인 발전은 많이 앞서 있지만 질적인 발전은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포장디자인학회가 해야 할 일은 세미나와 연구·발표를 통한 포장디자인의 질적인 발전과 포장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한국적인 포장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연 최 회장은 학자다운 차분함으로 한국포장디자인학회 제2대 회장으로서의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70년대 제품이 다양해지고 각 업체들간 품질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포장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80년대 포장디자인이 본격화 된 초창기 부피가 큰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지금까지도 문제시되고 있는 과대포장, 과잉포장이 조장되었고, 90년대에 들어 종량제가 실시되고 과대한 쓰레기 처리와 자원낭비라는 부분으로 포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자원낭비라는 부분은 포장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최 회장은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단체들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각 기업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이 소비자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홍보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라며 디자이너들이 자원재생·환경문제를 포괄함과 동시에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충분히 담은 우수한 디자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포장디자인학회의 이후 향로에 대해 꾸준한 연구와 가을 세미나, 그리고 논문 2집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포장관련



▲ 한국포장디자인학회 회장으로서 포부를 밝히는 최동신 회장

전시회에 참가하고 외국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대부분이 강의를 하는 회원들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포장은 물론 포장디자인 분야가 거의 전무했던 60년대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던중 그 종합적인 기능에 매료되어 포장디자인에 입문했고 현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 회장은 포장디자인이 까다롭고, 기능적인 면과 시각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반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쉽게 싫증내는 요즘 학생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제 역사적인 고찰과 포장의 분야를 좀더 개방해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며 외국 것의 모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경험과 경제력,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포장디자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회는 더욱 성실히 연구하고 실무자들의 경험을 함께 하여 포장디자인의 커다란 진일보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맺는 최 회장의 눈빛에서 우리나라 포장디자인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